



약해진다. 통제하에 놓여있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술을 마치면 울거나 웃거나 한다. 조금 더 지나면 자꾸 졸리게 되면서 혈압이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뇌의 통제기능 마비는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어진다는 사람을 만들고 근육의 마비는 호흡곤란을 가져온다.

술을 마시다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K씨 부부는 중매반 연애반 결혼을 하였으며 아이 하나를 두었다. K씨는 서른 살이 넘어서 남보다 늦은 결혼을 하였다. 집안 분위기가 있어서인지 결혼전 남들과의 성관계라고는 술집에서 두세 번밖에 없었다.

사실 신혼 때부터 사정이 빠른 것이 고민이었지 발기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병원에 온 까닭은 조루문제도 있지만 성욕이 없어서였다.

부인 말이 성관계를 해본 지가 6개월도 넘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니 신혼 생활 때도 성관계를 자주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잘 모른 탓에 별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붓물 터지듯이 나오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남편은 지방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아이 때문에 주말부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말에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잠만 자거나 TV를 보는 일로 소일하였다고 한다. K씨는 업무특성상 거의 매일 술자리가 있었다. 현장 일이라는 것이 사람들 만나고 통솔하는 일인만큼 술자리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해서 잠만 자게 되더라는 것이다.

성관계가 없다보니 부인은 혹시 '남편이 새로운 여성이 있나'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 자신도 진찰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부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병원에 오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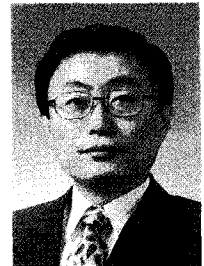
성기능 검사상 성욕 감퇴로 외부의 자극에도 K씨의 남성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거의 매일 마시다시피 한 술은 신체를 지방간에 고지혈증으로 바꾸어 놓았다. 만성피로까지 겹쳐서 성욕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되어버린 것이다.

"아니 벌써 제 나이에 갱년기 현상이 왔다고요. 앞으로 술을 끊고 집에 일찍 들어가야겠네요." 하며 탄식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 일단 원인을 알면 치료가 쉬어진다. K씨는 술을 끊거나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짖은 술자리는 간뿐만 아니라 발기에 영향을 준다. 더욱이 고지혈증은 음경내부의 혈관을 막아서 발기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돌아오지 않는 발기력은 결국 남성의학에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문의전화 02)779-4400



이윤수비뇨기과 원장

